

## “국힘, 5월정신 헌법 수록 외면말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개헌 논의 촉구  
시의회도 “개헌특위 즉각 구성” 요구  
‘地選 때 동시 국민투표’ 로드맵 강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수차례 약속하고도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조건 없는 즉각적인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헌을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세

우는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며 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압박했다.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6·3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 의장이 제시한 논의의 시작 시한인 3월17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를 핑계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개헌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변명이자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1987년 제정돼 올해로 39년 째를 맞이한 현행 헌법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의원들은 “12·3 사태는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한 지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다시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은 여야 정치권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 개헌 과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명시 등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는 국민의 77%,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명시에는 88%의 국민 동의가 확인된 사안이며, 5·18 정신 수록 역시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것”이라며 기본적 사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 착수를 요구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변은진 기자



봄비에 만개한 매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18일 광주 남구 구동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이제 막 만개하기 시작한 매화나무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 /조영권 기자

## 민주, 오늘부터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6·3 지방선거 D-76

내일까지 ‘권리당원 100%’ 여론조사  
6명 중 1명 탈락...본경선 대진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19-20일 진행된다.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치러지는 예비경선을 통해 6명의 후보 중 1명이 탈락하는 만큼 ‘차관문’을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4·5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9-20일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100% 권리당원 대상)을 실시한다.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는 기호 1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

지사 직무정지), 기호 2번 강기정 광주시장, 기호 3번 정준호 국회의원, 기호 4번 주철현 국회의원, 기호 5번 신정훈 국회의원, 기호 6번 민형배 국회의원 등 6명이다.

예비경선에 앞서 후보들의 정책·자질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17-18일 이틀 동안 열렸다. 토론은 17일 A조(김영록·강기정·주철현·민형배), 18일 B조(정준호·신정훈)로 나눠 진행됐다.

예비경선을 통해 6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경선은 4월3-5일 ‘권리당원 50%+시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진다.

본경선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정책배심원제 권역별 심층토론회’가 도입된다. 30명의 정책배심원은 광주권, 전남 서부권, 전남 동부권 등 3개 권역(순서 무작위 추첨)에서 패널 토론과 즉문즉답 형식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역량을 평가한다.

현 경쟁 구도를 감안할 때 본경선에서 50% 이상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쉽지 않은 만큼, 본경선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선투표는 4월12-14일로 예정돼 있다. /김재정 기자

## 알림



## 전남광주특별시 ‘가족사랑 걷기대회’

4월4일(토) 오전 8시30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참여하는 ‘제2회 전남광주특별시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를 오는 4월4일(토)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걷기대회는 심혈관과 심폐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울증·스트레스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했습니다. 광주천변 일원 A그룹(7km)과 B그룹(5km) 코스로 걷습니다.

건강걷기대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동호회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다양한 부대행사 뿐만 아니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합니다.

상쾌한 봄 기운을 느끼면서 힐링을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걷기대회에 애독자 및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6년 4월4일(토) 오전 8시30분-낮 12시
- 장 소: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사전 접수
- 참가문의: 광주매일신문(062-650-2079)
- 참가비: 무료
-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신문

## 靑 “UAE, 한국 최우선 원유 공급 약속”

강훈식, 2천400만배럴 긴급도입 발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3·19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다”며 “이에 총 1천800만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천200만배럴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공급받은 600만배럴을 더하면 총 2천400만배럴을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

강 실장은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실장은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원유 공급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적어도 대한민국에 원유가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수 기자

## Today

- ‘교복입찰 담합’ 광주 27개 업체 적발 6면
- 남도인물열전-의병장 ‘준봉 고종후’ 14면
- KIA, 시범경기서 드러난 최대과제는? 16면

성장장성  
Jangseong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장성군  
Jangseong-gun